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8. 2. 1.(목) 총 4매(본문 3)	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의현, 사무관 강동수, 주무관 손경화, 이수범 • ☎ (044)201- 4244, 4251, 4249,
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김인곤 • ☎ (044)201- 4207, 4215, 4212
	항공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, 주무관 정상모 • ☎ (044)201- 4294, 4299, 4300
보 도 일 시		2018년 2월 2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·중간 조속한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

-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컨퍼런스 (북경)

- 국토교통부장관(장관 김현미)은 ‘18.1.31~2.1 중국(북경)에서 개최된 “아·태 항공 장관급 회의(중국 북경)”에 우리 대표단(수석: 2차관)을 보내
- 중국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인 한·중 항공로 복선화 및 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였으며,
-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.

《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회의》

- 기간 : ‘18. 1.31~2.1
- 주최 : ICAO와 중국 민용항공국(CAAC) 공동
- 참석 : 中·日·美 등 35국 항공당국 장관, 항공청장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/단체
- 배경 :
 - 아태지역은 타 지역보다 항공교통량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안전체계와 항행 인프라 낙후 국가가 많아,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고위 공무원(장관급)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,
 - △우선 추진 과제 논의·선정* △ 지역내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△ 공동 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도모

-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2차관(맹성규)은 장관급 회의 개최 하루 전인 1.30(화) 중국 민용항공국장(장관급)과의 면담을 통해 한·중 항공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고,
 -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운수권 확대 등 항공 운송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,
 - 한-중 항공로의 수용량 증대와 교통지연 완화를 위해서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“한·중 항공로(G597)의 복선화”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이 합동 실무그룹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한·중 항공로 복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하며,

※ 한-중 항공로(G597) 개황

- (개설) 중국,유럽,중동 등 30개국 90여개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간선항로로 '94년에 개설
- (교통량) 연간 약 15만편 이용 중이며, 연평균 10% 증가 추세
- (지연현황) '16년 1,250편 지연: 60분이상 1,004편, 90분초과 63편, 120분초과 183편
- (개선방향) 국내구간에만 설정된 복선 항로를 중국공역까지 연장(1,500km)

- 한·중 항공로가 복선화하게 되면 입·출항 항공로가 분리되고 중국·유럽·중동 행 항공기의 지연도 줄어들어 비행안전과 더불어 연료절감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우리 대표단(맹성규 차관)이 제1회 아태 민간항공 장관급 회의에서 아국의 항공안전, 항행,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 현황 등을 소개하고,
 - 아·태지역 항공안전 및 항행서비스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·협력할 계획임을 강조하였으며,

(주요 발표내용)

- 아국의 항공교통 산업 규모
- 최근 아국의 공항시설(인천공항 제2터미널) 구축 사업 현황
-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
- 항공교통본부 신설, 위성항행시스템(KASS), ADS-B 구축 등 등 항행분야 추진 사업
-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및 방문교육 현황 등

- 이 밖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의장(Dr. Aliu)와 사무총장(Dr. Liu)과의 면담을 갖고,
 - 그간 아국이 ICAO 이사국으로서 수행한 국제협력사업,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, 앞으로도 국제항공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이에 맞는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아국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전달하는 한편,
- 유럽 항공안전청(EASA)(청장 Mr. Patrick Ky) 및 미국 연방항공청(FAA) (국장, Mr. Chris Rocheleau)과의 면담을 통해 항공안전 및 항공기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.



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동수 사무관 (☎ 044-201-42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중국 민용항공국장>



<icao의장>



<icao 사무총장>



<아태민항장관회의 단체사진>